



02 보도 대학별 대학구조개혁 대응방안 03 사회 대학언론의 위기를 말한다 05 사람인 박영옥 출판기획자를 만나다 06 학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청각적 쾌감 07 문화 좋아서 하는 밴드

‘대학정원 감축’과 ‘대학 특성화사업’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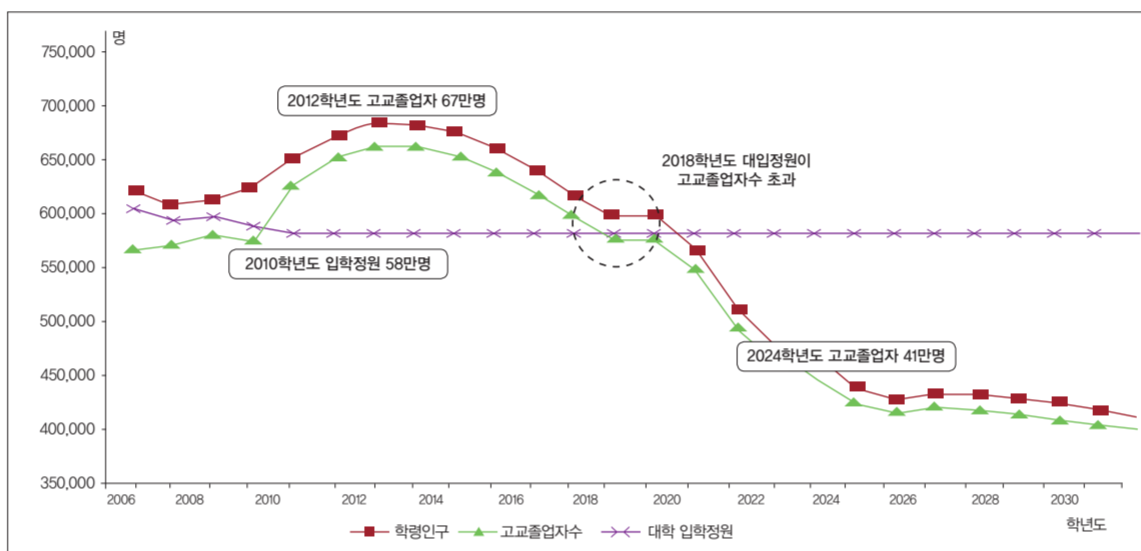
학령인구 감소,

강화된 대학구조개혁

대학별 경쟁력 필요성 대두돼

대학구조개혁은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학교육역량평가 ▲정부재정지원대학평가 ▲대학기관평가 ▲경영부실대학 등 다양한 평가를 추진해왔다.

소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전일교원비율 확충, 소규모강좌 개설, 강사로 인상, 법인으로부터 법정부담금지원, 학사관리제도 개선 등이 모두 대학구조개혁에 대처해온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교육부가 2023년도까지 3주기로 나누어 대학정원 16만명 감축하고,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는 등급별 정원감축 구조개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평가영역(예시)은 ▲대학발전계



▲연도별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고교졸업자수와 변하지 않는 대학 입학정원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출처: 교육부

회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대학(법인)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대학 특성화 등 9가지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평가영역에 대해 장영우 팀장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른 평가요소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과 비슷하지만, 대학 특성은 새롭게 구성된 평가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많은 대학들이 ‘대학 특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년제 대학은 2년제 대학보다 특성화 사업에 주력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평가를 앞둔 대학들이 ‘학생선발 영역’과 ‘대학 특성화 영역’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관건이다. 많은 대학들이 특성화 계획에 갖고 있지만, 이번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때문인지 특성화 계획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지 않고 있다.

장영우 팀장은 “본교에서도 특성화에 대비해 대학 사업을 준비하고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량이다. 출처: 교육부

있다. ‘한류문화콘텐츠학과’, ‘융합컨설팅학부’, ‘글로벌서비스무역학과’, ‘디지털융합클러스터학부’, ‘문화예술융합학부’ 등 5가지 사업을 구상중이다. “이제 교육부에서 평가영역 시안 밖에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대학 특성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8월경에 정확한 평가내용이 발표된 후에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정책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창원(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은 구조개혁의 법제화이다. 8월말까지 대학구조개혁의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관한 실시가 생략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면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는 2면에서는 서울권대학, 지방대학, 전문대학 별 대학구조개혁

다. 때문에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각종 평가’,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채찍과 ‘개선방안 마련’, ‘평가에 따른 지원’, ‘가산점으로 인한 자발적인 개혁’이라는 당근을 잘 활용하여 대학들의 반발은 줄이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교도 교육부 방침에 잘 적응하며 새로운 특성을 잘 만들어 내고 있다. 다가오는 8월 법제화에 맞춰, 본교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는 2면에서는 서울권대학, 지방대학, 전문대학 별 대학구조개혁

대책 방안에 대해 취재했다. >>2면에 계속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회가 주최 못해



▲외부에서 진행된 2014학년도 입학식의 학생들 모습

교육부, 집단 연수 안전

확보 위한 매뉴얼 배포

지난 3월 21일 교육부는 부산외대 경주리조트 사건을 계기로 삼아 ‘대학생 집단 연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 연수는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학생회·동아리 등이 주관해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를 지칭한다.

매뉴얼에는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관련 사항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범위 확인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숙박시설의 경우, 지자체 시설 또는 위생·소방·전기·가스 등의 안전 점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통수단 역시 차중·연식·운전자 적격 심사·보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상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보상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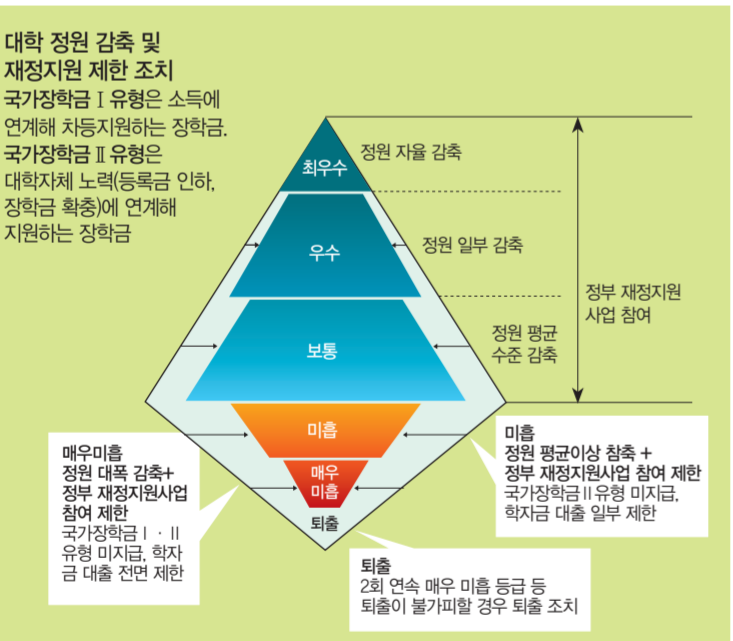
안전 교육을 실시해 소방시설, 대피경로와 비상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 활동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예방한다.

전민우(학생지원팀) 주임은 “학생회와 각 학과의 학과장님들에게 공문으로 매뉴얼을 전달 예정이며 8가지의 최소 준수 사항이 있다. 학생자치기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학교 측에서 안전 교육을 시킬 것이다. 각 학과 엔티 같은 경우에는 각 학과장님과 조교들이 전담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입학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경우에는 학생 보호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해야 한다.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주최 측이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사 주최자의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우리학교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기 전 학생자치기구가 주최했던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입학식과 통합해 지난 2월, 2014학년도 입학식을 주관했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5등급으로 나누는 등급별 정원감축 구조개혁의 내용이 담긴 표이다. 출처: 교육부

학과 학생회비, 감사국의 감사받는다

지난 28일 진행된 확대운영회의 결과, 이종혁(정통 4) 총학생회장은 앞으로 각 학과별 학생회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앙기구(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총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와 단과대 학생회(인문대, 사회과학대, 예술대, 공과대)가 총대의원회 감사국의 감사를 받았다.

과 대의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감사의 명확한 기준과 감사 체계가 학과별로 상이하다보니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이종혁 총학생회장은 “학과별 학생회비는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다”며 “학생들이 낸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학생회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정효(산공 4) 총대의원은 “학과 학생회 역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투명한 회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실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전체 학과 감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원정효 총대의원은 “총대의원회 감사국만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학과별 감사에서는 중앙기구 감사에서처럼 경고 조치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 결과를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공지해, 모든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혁 총학생회장은 “감사 결과 공고를 통해 청렴한 학생회를 만들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각 학과 학생들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대학언론인들 한자리에 모이다

지난 22일 토요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2회 대학언론포럼이 개최되었다.

‘대학언론의 위기와 공론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학언론포럼에서는 30여 개의 대학언론 매체(각 대학의 교지, 방송국, 영자신문사, 학보사, 자치언론 등)와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대학언론협동조합, 21세기대학신문, 5개 대학의 교지가 기획단이 되어

정정합니다.

지난 487호 4면 ‘도망가는 부모들, 남겨지는 아이들’ 기사에서 <2009년 12월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72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다>를 <설치 이후 2014년 2월 말일까지 총 412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다>로 수정합니다.

또한 베이비박스는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할 처지에 있는 미혼모의 아기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한 대학언론포럼은 대학언론인들이 자발적으로 주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참여자들은 대학언론이 맞은 위기와 해결책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또한 소속매체의 상황과 각 대학의 공론장 실태에 대해 공유했다.

>>3면에 계속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HBS 편성표

방송 일시	월	화	수	목	금
아침 8:40 ~9:00	생방송 낙산의 아침은	생방송 낙산의 아침은	낙산의 아침은	낙산의 아침은	낙산의 아침은
	채스	deep to deep	채스	deep to deep	deep to deep
점심 12:10 ~12:50	스물하나	미스터리가든	스물하나	미스터리가든	스물하나
	여행수다, 여수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여행수다, 여수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저녁 5:10 ~5:40	채스(재)	deep to deep(재)	채스(재)	deep to deep(재)	deep to deep(재)
	스물하나(재)	미스터리가든(재)	스물하나(재)	미스터리가든(재)	스물하나(재)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강행

서울권대학, 지방대학, 전문대학 대응방식 알아봐

지난 1월 29일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해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 앞에서 비상이 걸렸다. 대학이 어떠한 대응방식을 내놓았는지 서울권대학, 지방대학, 전문대학도 별로 살펴보자.

◆ 서울권대학

서울에 위치한 대학들은 이러한 대학구조개혁의 폭풍 속에서 어떠한 생존방식을 취하고 있을까?

성북구에 위치한 국민대학교는 구조개혁에 대응해 창업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 자동차대학에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와 자동차 IT학과를 신설해 융합교육에 시동을 걸었으며 디자인 같은 학교만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서경대학교 측은 학교평가와 정책문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 내의 대학들은 각 대학마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측은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준비 중인 대응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캠퍼스 별로 특성화하는 대학들도 있다. 단국대학교는 문화와 기술 중심으로 축전캠퍼스를, 생명공학기술로 천안캠퍼스를 특성화했다. 한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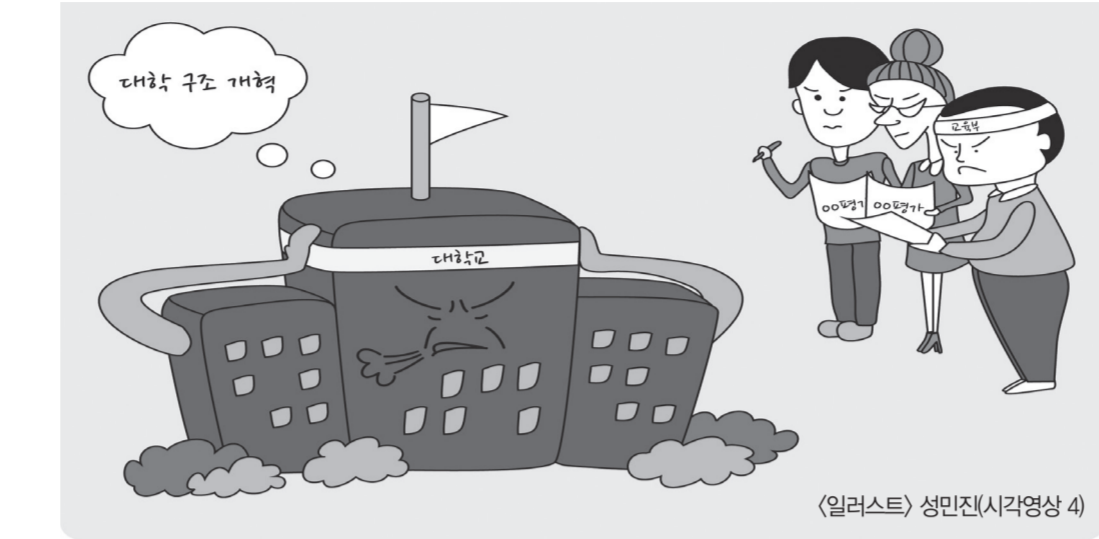
국어대학교는 어학중심으로 서울캠퍼스를, 통번역과 지역학 중심으로 글로벌캠퍼스를 특성화시켰다.

대학구조개혁에 맞춰 새로운 캠퍼스를 개설하는 대학들도 있다. 서강대학교는 남양주캠퍼스를 신설하며 남양주캠퍼스에서 2018년까지 무료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대학교는 2018학년도 개교 100주년기념에 맞춰서 제3캠퍼스인 검단캠퍼스를 건설할 계획이다.

◆ 지방대학

대학구조개혁의 태풍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지방대학들이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지방대들은 가장 많은 반발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대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교육여건이 나은 수도권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대학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학구조개혁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지방대학교들이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경동대학교가 양주캠퍼스를 개교했다. 중부대학교 역시 2015년 내로 고양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다. 청운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 발표가 나기 전인 2013학년에 인천캠퍼스를



〈일러스트〉 성민진(시각영상 4)

개교하면서 일부 학과가 임시 경영률이 60대 1까지 치솟았다.

특화된 교육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대학구조개혁을 헤쳐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우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 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소규모 토론회식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의 폭풍을 피하려고 세운 방안이 비판받은 경우도 있다. 조선대학교가 평가지표의 하위권 추락으로 인해 최근 마련한 교수 채용과 학생 취업 개선방안에

대해 품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수 중 70%는 비정년 교수이며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조교모집 공고도 많이 게시됐기 때문이다.

◆ 전문대학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70%이상 취업률을 달성해야 되 출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은 예술계열의 학과가 통합되거나 폐지될 확률이 높다.

대표적인 예가 서원대학교다. 서원대는 연극과와 사회체육학과 폐지를 결정했다. 또한 문예창작과는 미디어출판학과와 통합하는 것으로 학

과 측에 통보했다. 이에 학생들은 수업 거부와 침묵시위를 하는 등 격렬하게 대응했다.

그 밖에 대학구조개혁에 대비해 전문대학교들은 특성화전문대학교에 선정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앞으로의 구조개혁에 대처하기 위해 특성화 사업과 각 대학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안은 대학들에게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방식을 밝히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한성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간추린소식

‘역사 바로 알리기’ 소모임

2012년도에 결성된 ‘역사 바로 알리기’ 소모임은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역사 바로 알리기’ 소모임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처음 3명으로 시작해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13명이다. 자료 수집 외에도 자보나 홍보유인물을 제작해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운동과 위안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후원활동을 진행했다.

‘역사 바로 알리기’ 소모임은 홍보운동과 후원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집회’와 같은 주요집회에 참여해 규탄서 서명 등의 서명운동을 할 계획이다.

이예우(역사문화 3) 소모임 회장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파하고 싶어 소모임을 결성했다. 학우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아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소모임 활동에 관심있는 학우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해외 탐방 프로그램

Hansung Success Frontier 모집 시작해

오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Hansung Success Frontier 프로그램 서류접수를 받는다. Hansung Success Frontier 프로그램은 특정 주제(전공, 부전공, 관심분야)에 관련한 선진 기관의 탐방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팀 구성원이 직접 방문할 국가 및 기관을 조사하여 탐방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 4번째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지원금의 90%는 출국 전 지급하고, 10%는 결과발표회 평가 후 지급한다. 평가결과가 50점 이하인 경우 10%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많은 지원자들 중 8팀이 최종 합격했으며 방학 중 탐방을 다녀왔다. 탐방 이후 탐방에 관련된 보고가 진행됐으며 학생지원처장, 각 단과대학 학장이 평가를 했다. 최우수팀은 ‘건강한 도시인의 삶 걷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삼은 힐링U가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인센티브 50만원 및 개인별 지원액을 지급받았다. Hansung Success Frontier에 참여한 8팀 중 7팀이 탐방 보고에 합격했고 유일하게 ‘소상공인 구조대원’만이 탐방보고에 합격하지 못해 개인별 지원액 미지급되었다.

프로그램의 접수는 학생지원팀에서 받으며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한성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제1회 잉글리쉬 라운지 비디오 콘테스트

오는 4월 11일까지 제1회 잉글리쉬 라운지 비디오 콘테스트 응모작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 주제는 ‘잉글리쉬 라운지를 홍보’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평가한다. 응모양식은 ▲5분정도의 동영상 ▲자막, 회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포함 ▲A4용지 반 장 정도의 동영상 설명 및 기획의도 등이 있다.

잉글리쉬 라운지 비디오 콘테스트 탐방자 조재윤(잉글리쉬 라운지) 조교는 “잉글리쉬 라운지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로 인문·사과대 학생들이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잉글리쉬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상작은 4월 18일 잉글리쉬 라운지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1등(30만원), 2등(20만원), 3등(10만원) 총 세 팀에게 수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내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를 참고하길 바란다.

동정란

백성준(부동산학과) 교수 백 교수는 지난 10일 이태교, 이용만, 백성준 공동저술의 『부동산정책론(제3판)』(법문사)를 발간했다.

주정희(패션디자인 전공) 교수 주 교수는 지난 2월 28일 패션디자인전공 11명의 학생이 MOU를 체결한 항주의 절강이공대학교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떠났다고 전했다.

흡연구역 시행 그 후



▲ 탐구관 흡연구역에서 학생들이 흡연하는 모습이다. 교내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눈에 종종 보인다.

2014년도 학생회 모두 건설돼

지난 3월에 치러진 보궐선거(단과대 1개, 학과 8개)를 끝으로 2014년도 모든 학생회가 건설되었다. 작년에 이어 사회과학대(이하 사대) 학생회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경선으로 재적인원 2,154명 중 1,094명(50.7%)이 투표에 참가했다. 선거결과는 기호1번 ‘연애시대’ 득표율 33.09%(373명), 기호2번 ‘청년시대’ 득표율 62.97%(689명)로 기호2번 ‘청년시대’ 손운(경제 4) 정학생회장과 박재순(부동산 4) 부학생회장이 선출됐다.

손운 학생회장은 2013년도 사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고 올해 연임을 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선출되지 않은 사대 학생회장의 공석을 대신해 새터를 진행했다. 전년도에 학생회장을 하면서 느낀 바도 많았고, 이번 새터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껴 다시 출마하게 되었다”며 “전년도 학생회장의 경험을 살려 더욱 좋은 사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보궐선거						
단과대·학과	선거본부	장부	이름	학년	단선/경선	투표율/득표율
사회과학대	청년시대	정학생회장	손운	4	경선	50.07% / 62.97%
		부학생회장	박재순	4		
무역학과	히트	정학생회장	김준영	3	단선	64.45% / 87.3%
		부학생회장	우정태	2		
경제학과	더 나은 내일	정학생회장	최성태	3	단선	65.5% / 87.3%
		부학생회장	이상연	2		
의류패션산업전공	-	정학생회장	이시우	3	-	-
		부학생회장	서지현	4		
회화과	-	정학생회장	조성용	2	-	-
		부학생회장	김승기	2		
애니메이션전공	-	정학생회장	장동민	3	-	-
		부학생회장	-	-		
제품디자인전공	-	정학생회장	임영준	3	-	-
		부학생회장	-	-		
인테리어디자인전공	-	정학생회장	김용민	3	단선	56% / 86%
		부학생회장	류지현	2		
정보통신공학과	-	정학생회장	이종민	2	단선	54.9% / 87.9%
		부학생회장	이지수	2		
본선거						
단과대·학과	선거본부	장부	이름	학년	단선/경선	득표율
무용학과	하모니	정학생회장	노진환	4	경선	52.20%
		부학생회장	이시영	2		

2014년도 1학기 신입임용교원 안내

강상구
영어영문학부
조교수
서울대
서울대
(미)뉴욕주립대

임재진
행정학과
조교수
서울대
서울대
(미)뉴욕주립대

신성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원광대
원광대
원광대

이길영
경영학부
조교수
성균관대
(미)Iowa State Univ.
한성대

이명복
산업경영공학과
조교수
강릉원주대
중앙대
명지대

공호근
산학협력단
조교수
부산대
서강대
(러)Moscowstate Univ. of Service

박중권
산학협력단
조교수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오재승
산학협력단
조교수
서울대
한국과기원
(미)Iowa State Univ.

이은현
산학협력단
조교수
홍익대
경희대

정용재
산학협력단
조교수
한양대

한민규
산학협력단
조교수
한양대
한양대

홍순영
산학협력단
조교수
중앙대
중앙대
(미)Texas A&M Univ.

홍태민
산학협력단
조교수
서울대
포항공대

Jeffrey Valley
언어교육원
조교수
(캐)St. Thomas Univ.

위기의 대학언론, '공론장'이 해결책 될 수 있을까

제2회 대학언론포럼 개최되다



▲ 제2회 대학언론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대학언론포럼 기획단)

지난 22일,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트관 261호에서 '대학언론의 위기와 공론장'을 주제로 '제2회 대학언론포럼'이 개최되었다. 제2회 대학언론포럼은 대학언론협동조합, 21세기 대학신문과 5개 대학의 교지가 기획단이 되어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30여 개 대학언론매체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기획단은 포럼의 제안취지에 대해 "대학언론은 현재 매체의 존폐사체를 위협받고 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언론 사회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이 시작되기에 앞서 각 매체별 국장들이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후 ▲1부 발제-대학언론, 무엇이 위기인가? ▲2부 발제-(1)대학언론과 공론장 (2)오늘날 대학사회 공론장의 실태 ▲마무리-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발제가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소속매체의 상황공유와 토의시간을 가졌다.

1부- 대학언론, 무엇이 위기인가?

1부 발제는 대학언론협동조합 정상석 이사장이 맡았다. 그는 대학언론의 위기상황으로 편집권의 위기, 경제적 위기 등을 밝혔다.

편집권의 위기는 발행인이 총장, 즉 학교인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학교에 불리하거나 사회비판적인 기사를 실을 경우 주간교수 또는 학교가 이를 제지하는 것이다. 정상석 이사장은 <가톨릭대학교>가 정의한 '편집권 침해'를 인용해 설명했다. <가톨릭대학교>에 의하면 편집권 침해란 '사주, 광고주, 취재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의 크기, 방향, 배치 등이 좌우되는 것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 기자들이 내고자 하는 기사를 낼 수 없도록 막는 총체적 행위'를 뜻한다. <가톨릭대학교>는 지난해 주간교수에 의한 편

집권 침해를 겪어, 편집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정상석 이사장은 "현재 대학언론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어떠한 법의 안전망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위기는 실로 대학언론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다. 대학언론의 예산구조는 크게 학교에서 대학언론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학생들이 구독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경우 다시 자율납부제와 의무납부제로 나뉜다. 학생회비에서 일정금액 할당되는 방식이다.

현재 대학언론은 학교가 일방적으

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구독료의 의무 납부에서 자율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연세춘추>는 지난해 3월, 1편을 백지상태로 발행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세춘추>의 구독료 납부방식이 의무납부에서 자율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학교 측의 지원문제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 위기의 해결책은 학생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 이를 위해 공론장 기능 회복할 필요성 있어 ”

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구독료의 의무 납부에서 자율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연세춘추>는 지난해 3월, 1편을 백지상태로 발행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세춘추>의 구독료 납부방식이 의무납부에서 자율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학교 측의 지원문제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2부- 대학언론과 공론장/ 대학사회 공론장의 실태

2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21세기대학뉴스 성우중 편집국장은 대학언론의 다양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론장'을 제시했다. 그는 "얼마 전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을 보며, 대학언론은 과연 학생사회에서의 공론장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언론은 공론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곳이

다. 대학언론은 학생들을 공론의 장으로 견인해, 참된 공론을 통한 학생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론장이란 과연 무엇일까. 공론장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들이 사회적·공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토론해 여론을 형성하는 영역'이다. 대학생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론장이 몇이나 되는가? 운동권 시절과는 달리 현재 대학사회에는 공론장이 급격히 쇠퇴한 상태이다. 개인주의의 심화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정치·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해진 탓이 크다.

2부 두 번째 발제는 이화여대교지 <이화> 이수완 편집국장이 발표했다. 그는 "오늘날 대학의 공론장 실태"에 대해 설명하며 대학사회의 공론장을 크게 온라인 커뮤니티, 오프라인 학생 자치모임, 게시물로 분류했다. 다음은 이수완 편집국장이 설명한 대학사회 공론장의 종류와 한계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의 공론장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는 역으로 오프라인 공론장을 쇠퇴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모적인 논쟁이 오가는 한계가 있다. 본교 온라인 커뮤니티는 '낙산의 메아리'가 대표적이다.

▲오프라인 학생자치모임: 대표적으로 '학생회'가 있다. 학생회는 가장 공식적인 공론장이지만 현재 대학사회에서 학생회와 일반학생들의 관계가 소원한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학생총회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쉽

게 열리고 있지 못하거나 열리더라도 무산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게시물: 대자보를 포함한다. 대자보의 경우 학교 건물을 이용한다는 특성 상 학교본부의 간섭, 검열을 받게 된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대자보 게시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계이다.

이수완 편집국장은 대학사회의 공론장에 대해 이 같은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대학언론이 학생사회에서 공론장 기능을 회복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 시간은 대학언론의 공론장 기능에 대해 전체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대학언론이 학생들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자칫 엘리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언론은 누구를 대변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하는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언론의 대표적인 기능은 형성된 여론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공론화 시키는 것이다. 공론장 형성은 이러한 기능과 깊이 관련된다. 대학언론이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대학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갖고 있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미 형성된 여론을 공론장을 통해 공론화 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공론장 형성은 이미 대학언론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일 수도 있다.

대학언론포럼은 대학언론매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에 의의가 크다. 대학언론포럼이 정착, 안정화되어 명맥을 이어나갈지, 2차 포럼을 계기로 공론화에 대해 대학언론사회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직업, 경계와 통(通)하다

BCG 매트릭스로 본 일과 가정의 조화

사업부를 평가하는 도구 중 가장 유명하며 활용도 또한 가장 높은 것은 'BCG 매트릭스'이다. 이러한 BCG 매트릭스는 Boston Consulting Group에 의해 70년대 초에 개발되었다. BCG 매트릭스는 어느 사업단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지 판단하고 각 사업부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BCG 매트릭스는 '상대적 시장점유율(RMS: Relative Market Share)'과 '시장성장률(MGR: Market Growth Rate)'을 기초로 하여 각 전략사업단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먼저 상대적 시장점유율(RMS)이란 시장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데,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산업의 경우 수익률이 높다. 반면 시장성장률(MGR)은 해당 산업의 미래 지향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시장성장률이 높을수록 미래지향적인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으나, 경쟁을 위해서는 투자비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BCG 매트릭스는 산업부의 상황을 진단하는 척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BCG 매트릭스를 통해 자신이 해당 분야에 재직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반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BCG 매트릭스에서는 높은 시

장성장과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산업들을 '별(STARS)'로 칭한다. 고성장·고점유율 사업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사업부이지만,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 시 지출이 필요한 사업이다. 구직자가 이러한 산업 부문에서 종사하게 될 경우,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막 시장을 만들어 가는 분야 내지 개척해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노동 강도를 요구받게 된다. 단적인 예로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초기에 편의성을 더해 준다면, 소비자들은 좋지 않은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만 하는 업무 담당자들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 생활 못지않게 가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나 육아 내지 개인 취미 활동 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분야의 산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회사와 개인의 삶이 충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진취적인 직장생활을 꿈꾼다면, 역동적인 업무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선호할 수 있는 산업부분야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저성장·고점유율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다. 이를 '현금젓소'라 부르는데 이러한 산업 부분은 이익과 현금창출력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금젓소로 분류되는 산업은 시장이 더 이상 크게 확장되기보다는 기존에 형성된 시장을 놓고 각 회사에서 상호 경쟁하는 구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성장률이 낮다고 해서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앞서 제시한 고성장 분야의 산업에 비해서는 노동 강도 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퇴근 이후의 삶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문제아(Question Marks)'로 분류되는 산업은 시장점유율은 낮고, 성장률은 높기 때문에 사실 취하기도 버리기도 애매한 파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으로 분류되는 분야에 취업할 경우 M&A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M&A 대상이 될 경우에는 무조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좋은 회사에 인수 합병되는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열거하였듯이 BCG 매트릭스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지만, 내가 지원한 회사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회사이며, 그로 인해 나는 어떠한 근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도 유용하다.

박정호 KDI 전문연구원

| 사회를 보다

대자보의 훼손, 대학 지성의 훼손

최근 대학가에서 대자보 훼손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서강대 성소수자모임 '츄름'은 Q가 서강대학교에 게시한 대자보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에는 고려대와 이화여대의 성소수자 동아리가 졸업과 입학에 맞아 내건 현수막이 사라졌다.

작년 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불 당시에는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학교에 붙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찢고 인종 사진을 올린 바 있다. 대자보의 주인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일베 회원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았다. 더불어 그 당시 우리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본교 일베 회원이 학교건물에 붙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찢고, 인종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본교생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가해자가 일베 회원이라거나, 피해자가 '성소수자 동아리'라는 점은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일부 대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서적, 합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누군가의 대자보를 찢는 행위'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적으로 구타하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다.

비록 대학이 취업양성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어쨌든 대학은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교육기관임이 틀림없다. 지식의 전달이라 불리는데 이곳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까? 원인을 생각해보면, 대학생들이 토론문화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정당한 근거를 통해 주장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동안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왔고, 본인도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자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며 나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즉, 대자보를 찢는 행위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서툴러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견과 잘 끝에 난투극을 벌이는 행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후자는 말했다. 대자보를 붙일 권리가 있다면 대자보를 찢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매우 무서운 발상이다. 상대방의 대자보를 허락 없이 찢거하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며 모욕죄, 심지어 재물손괴죄에도 해당되는 명백한 '범죄'이다. 누군가의 대자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옆에 반박 대자보를 붙이면 될 일이다.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낡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이화방어기제검사 Workshop 안내

이화방어기제 검사를 통하여 대인관계와 심리적 갈등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개인의 특정한 행동 및 태도를 이해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 3월 26일(수) ~ 4월 2일(수) 오전 9시~오후 5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촌관 210호), 전화신청(760-417)
- 일시 : 4월 3일(목) 오후 3시 ~ 4시 50분
- 신청장소 : 학생생활상담실(우촌관 210호)

기쁜 마음으로 졸업을 맞이하려면



교단에서

최천근 교수
(행정학과)

신입생들이 입학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활기찬 어울림과 역동적인 몸놀림이 교정을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대학생 때만큼 아름다운 시기도 있을까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며, 불투명한 앞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4년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생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필자가 소속된 행정학과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행정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공무원이 되려는 꿈을 안고 입학할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꿈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희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일 수도 있으며, 성적에 맞추어 지원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행정학과를 접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행정학과에 입학하면 한 번쯤은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할

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 길을 원하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은 머릿속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공무원으로서의 일생은 어떠한지, 공직자로서 필요한 덕목과 자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학년 동안에 진지하게 자신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향이 잡혔다면 이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면, 당장 공무원 시험 일정을 살펴보고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재학 중에 합격한 선배들을 만나보거나 지도교수님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는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마음만 먹었다면 4년 내내 한 번도 공무원시험

을 치러보지 않고 졸업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회를 살리십시오.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Kairos)는 기회의 신입니다. 그는 앞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이며,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한 번 기회를 알아차리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주어진 기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방향을 잡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4년 후 졸업식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 설 경쟁과 창의성

독일의 뇌과학자 한스 게오르그 호이젤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인 세 가지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자극(Stimulus), 균형(Balance), 지배(Dominance) 동기입니다. 이 세 동기의 상대적 중요성은 민족이나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서구인들은 지배 동기가 강한 반면 극동 아시아인들은 균형 추구 동기가 강합니다.

지배 동기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동기로 이것이 강하면 명예, 권력, 경쟁, 싸움, 효율성 등의 하위 동기도 강해집니다. 반면 균형 동기는 전통, 신의, 우정, 온정, 자연, 타인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게 됩니다. 독립성이 강한 서구인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천연주의나 보수적 성향이 강한 동양인의 성품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자극 동기는 유희, 즐거움, 예술, 창의력, 개인주의 등의 하위 동기를 유도합니다. 서구인이나 동양인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극 동기에 더 강한 것 같지는 않지만 개인주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구인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적 인재들의 정기를 보면 모두 매우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빌게이츠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경쟁심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창의력은 자극동기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 통설인데 지배동기가 강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라는 개인이 지배동기가 강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고 활동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극 동기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극 동기를 중시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심이 강한 개인은 과감하고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여유가 창의성의 비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자 균형 동기가 강한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문다. 아직 그 누구도 정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지배 동기를 중시하는 사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꼬리를 무는 청소년들의 자살 소식 때문은 아닙니다. 균형 동기는 개체나 문화의 유지, 보존을 담보하는 동기입니다. 그런 동기가 지배 동기와 결합한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봉건적 계급사회 말입니다.

위기 속 대학가, '위기탈출 넘버원'

지금 대학가는 다양한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 비민주적인 학칙 개정 등. 이 위기들을 모두 헤쳐 나가면 위기탈출 넘버원이 되는 것일까?

위기 속 대학가는 시끌시끌하다. 구조 조정의 폭풍 속에서 학과가 통폐합되고 학적 관련 학칙은 소리 소문도 없이 변경됐다. 학생들과 정면 대치하고 있다.

일방적인 학교의 통보에 학생들은 불났다. 이에 경시대, 영남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신대는 총학의 주도로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했다. 전체학생총회란 모든 학생들이 일정 정족수 이상 모여 중대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최고의결기구이다.

지난겨울 한성대도 시끌시끌했다. 성적세칙 변경 소리 소문도 없이 진행되고 기말고사 일주일전에 통보되었다.

일방적인 학교의 통보에 학생들은 불났다. '안녕하십니까?' 열풍과 함께 세칙변경에 반대하는 자보가 불었고 낙산의 메아리 게시판의 조회수는 연일 높아져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낙산의 메아리와 안녕들 자보 그 이상의 공론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학가가 처한 위기는 산 넘어 산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천사들의 보금자리에 다녀오다



기자수첩

김근영 기자
(행정 3)

한 달 전쯤,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방학동안 비슷한 생활패턴이 반복되어 따분해져 있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방학이 거의 끝나 애매해서, 별다른 대책 없이 권태로움에 내 몸을 맡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어머니께 털어놓자 봉사활동을 권하셨다. "봉사활동은 어떨까? 나도 요즘 봉사 다니고 있는데 느끼는 게 많더구나." 순간 이거구나, 싶었다. 봉사활동이 내 지루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떤 봉사를 해야할지 약간 막막했다. 그래서 이왕 봉사활동을 하는 김에 내가 관심있는 곳에서 봉사를 하기로 했다. 평소 아기를 정말 좋아하는 나는 무작정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그러던 중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영아일시보호소'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서울영아일시보호소는 아이들이 입양되거나 위탁가정이 선정될 때까지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대부

분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있다. 봉사활동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기들도 원 없이 볼 수 있겠다 싶어 가슴이 설랐다.

그렇지만 봉사를 가기 전부터 걱정이 앞섰다. 아기들을 좋아하지만 직접 보살펴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아기를 안을 때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난 기저귀 가는 방법도 모르는데' 등 온갖 걱정이 들었다. 드디어 봉사 당일, 역삼동에 있는 보호소에 도착했다. 직원 분의 안내를 받아 아기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한 아기를 마주보는 순간, 세상에, 여긴 천국이 따로 없었다. 봉사를 하기 전에 했던 수많은 걱정들은 금세 잊혀지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얼굴 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작은데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 모두 있는 것도 정말 신기했다.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면 집중해서 열심히 먹는 모습도 그렇게 예뻐 수가 없었다. 어쩌다 아기가 웃

음을 터뜨리면 누적되었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다. 걱정했던 기저귀 가는 방법, 안는 방법은 내가 난처해하자 직원 분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다. 다소 떨렸던 첫 봉사가 끝나고 몇 번을 더 가고나니 이제는 아기 돌보기가 꽤 익숙해졌다. 지금은 아기들의 이름도 외었다.

아기들을 돌보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 아기들을 소중히 대함으로써 역으로 나에게 소중함 또한 느낀 것이다. 아기들도 나도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서울영아일시보호소를 자신있게 권한다. 단, 봉사 전 손톱을 짧게 깎는 것은 필수이며 조금이라도 감기기운이 있다면 봉사는 나중에 미루자. 생명을 대하는 봉사라 다소 까다롭지만 그만큼 느끼고 배우는 바가 크다. 혼자서는 물론 친구, 가족 혹은 연인끼리 가서 아기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

한성 Hunger Game(Hunger Game)이 시작됐다



낙산에 올라

이창민 학생
(한국어문학부 4)

지난 2013년 12월 학교는 시끄러웠다. 갑작스러운 학교 측의 상대평가 세칙 변경 때문. A학점의 범위가 기존 30%에서 20%로 줄었고, 클래스 인원이 기준 미달일 경우 적용되던 절대평가도 모두 상대평가로 바뀌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13-2학기 상위 21-30%에 해당하는 성적의 친구들. 지난 학기까지 적용된 기준으로는 분명 A학점이었는데 이젠 B학점이니 그럴 수밖에. 이에 수많은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억울함에 울분을 토했지만 그게 다였고 변한 건 없다.

이제 14-1학기의 시작. 세칙 변경은 지난 학기부터였지만 변경 내용을 인지한 채 학기를 시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주 강의의 안내를 위한 수업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반가운 자리임과 동시에 더 좁아

진 A학점 문턱을 넘기 위한 차가운 경쟁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중에 20%만 A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슬픈 비장함이 느껴졌다.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독기 좀 품지 말라고 충고할 생각은 없다. 그럴 자격도 없다. 그 누가 이에 초연할 수 있겠는가. 나 역시 열이 나고 억울하다.

그런데 만일 20%가 아니라 25%로만 줄었다면 좀 '덜' 열이 날까. 만약 그랬다면 난 세칙 변경의 부당함이 아니라 20%는 좀 힘드네라는 내 위치에 대한 불안감에 열을 뱉던 게 아닐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평가로 등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다. 제도권 교육에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줄 세우는 일은 불가피하다지만 말이다.

문제는 1등을 가리기 위한 경쟁 시스템에서 나의 절대 가치가 배제된다는 점. 상대평

가 기준이 가혹해질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에서 '내 옆에 있는 재보단만 더 나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목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앞줄에만 있으면 1등이 된다. 추월할 자질이 충분히 있음에도 지금 당장 뒤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완주를 포기하는 일도 생긴다. 이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방법 중 가장 '간편할' 수는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지는 않다.

부당함을 알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없다. 참가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성 Hunger Game은 이미 시작했다.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경쟁. 나도 멋지게 싸워볼 생각이야. 그래도 우리 이것만은 기억하자. 진정한 적은 나와 경쟁하는 이 친구들이 아니라, 그 것. 적어도 내가 독기를 품을 대상이 이 클래스 안에는 없다.

투명하고 깨끗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한성인께

원정효
총대부의장
(산공 4)



김민지
총대부의장
(배대 4)

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학우여러분. 저희는 30대 'made'인 총대의원회 정의장 원정효, 부의장 김민지입니다. 이렇게 <한성인께>라는 코너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개강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 따뜻한 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도는 동아리, 소모임, 학생기구 등에 들어가 즐거운 대학생활을 누리고 계신지요?

학교에는 많은 학생자치기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면을 통해 총대의원회를 소개해 드리고자합니다. 학교에는 각각의 학부 혹은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에는 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외에 각 학년별, 주-야간별로 과대표가 있습니다.

이 과대표를 대의원이라 칭하며, 총대의원회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대표로 표출하는 기구입니다. 대

의원들은 각 과에서 학생회장단을 도우며 학교 행사의 진행을 도울뿐만 아니라 같은 학급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회장 혹은 총대의원회에 의견 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은 학생 회칙 개정의 발의 및 발인이 가능하며,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학생회비 및 예산결의안의 심의 및 승인권, 대의원 총회 의장, 부의장 선출권 과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대의원총회 의장의 탄핵권 등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의결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월 25일 1차 상임위원회와, 3월 28일 1차 대의원총회 가 진행 되었으며, 이번 1차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 총회를 통하여 학우여러분께서 납부해주신 학생회비의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각 공개기구 및 단과대학생회의 예산안을 검토

및 인준 받았으며, 이 인준받은 예산을 통하여 한 학기 동안의 행사를 집행하며, 차후 해당 예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감사 또한 총대의원회 내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진행이 되며, 학생회비의 올바른 운용 및 각 자치기구의 신뢰성 있는 사업의 진행을 미리 설정된 감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우들에게 공개와 할 목적으로 그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감사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시점이므로 현재의 기준과 새로운 기준을 통하여 보다 투명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낙산만평

성민진(사경영상 4)



꿈의 대화

“독자들이 원하는 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박영욱 출판기획자를 만나다

‘꿈의 대화’는 꿈에 대해 멘토와 멘티, 기자가 한 자리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그 꿈을 좇는 멘티(본교 학생)가 함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멘티는 꿈을 향해 보다 명확해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 주〉

우리 주변에 늘 가득한 책, 이 책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책이 시중에 나와 독자와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바로 출판기획자이다. 이번 ‘꿈의 대화’의 멘토는 우리학교 한국어문학부 졸업생이자 현재 ‘북오션 출판사’의 대표인 박영욱 출판기획자와 출판기획자를 꿈꾸는 김병찬(영어영문 4) 학생이 만났다.

멘토: 출판기획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편집기획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멘토: 출판기획자는 출판물 기획, 작가섭외, 교정, 책에 관한 마케팅 등의 일을 합니다. 편집기획자는 출판기획자가 하는 일을 포함해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멘티: 출판기획자가 되기까지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멘토: 첫 번째로 책에 대한 함없는 애정과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한 때 신문을 27개, 잡지 10개를 봤습니다. 지금은 일간지 13개, 잡지 4개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의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변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저의 비슷하기 때문에 A와 B가 있고



▲박영욱 출판기획자가 운영 중인 북오션 출판사 한켠에 위치한 책장.

면 그 속에서 새롭게 C와 D를 찾는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멘티: 한 출판사에서 출판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판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멘토: 현재 출판업계는 작가 중심에서부터 독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시점에 독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책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신문이나 TV를 보다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정한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작가를 섭외합니다. 전에 출간했던 책은 당시 6개월 전 신문을 보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50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팩스 번호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팩스를 보내고 작가님으로부터 2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작가님을 만나러 가는 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멘티: 책을 기획하는데 있어 책의 주제와 작가가 가장 중요하데 어떻게 출판할 책의 주제를 선정하고 작가를 섭외하게 되나요?

멘토: 현재 출판업계는 작가 중심에서부터 독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시점에 독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책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신문이나 TV를 보다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정한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작가를 섭외합니다. 전에 출간했던 책은 당시 6개월 전 신문을 보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50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팩스 번호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팩스를 보내고 작가님으로부터 2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작가님을 만나러 가는 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멘티: 한 권의 책을 출판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멘토: 한 권의 책이 출판되기까지 평균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작가님들의 원고를 쓰는데 4개월 정도 걸리고 편집하는 데도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편집이 완료되었다고 해도 출판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멘티: 출판기획자를 하면서 느꼈던 힘든 점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멘토: 책을 만드는 장점은 늘 새로운 책들을 출판하고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면 가게 안에서만 활동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 출판기획은 들

아다녀야하기 때문에 훨씬 다이나믹합니다. 또 새로운 책을 발굴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힘들었던 점은 한국 출판사장이 작고 출판기획이라는 것이 잘 인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엔 한성출판기획이라는 회사로 외부 출판사의 책을 기획했지만 지금은 출판사만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받은 경우에 책을 기획해도 출판사 측은 기획회사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출판기획회사는 절로 출판사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멘티: 많은 책들을 기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기획하신 책은 무엇이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책은 무엇인가요?

멘토: 처음 기획한 책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110가지 방법』입니다. 소형 출판사에서 근무할 적에 기획한 책인데 그때는 외환위기 때문에 재테크나 자기계발서를 많이 출판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역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110가지 방법』입니다. 10만부를 판매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출판기획자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멘토: 직업의 원칙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 직종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말고 한 우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책 만드는 일을 평생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난관을 극복할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번 꿈의 대화는 북오션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출판사 회의실 내 책장에 빼곡한 책들은 박영욱 출판기획자의 책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멘티로 참여한 김병찬 학생은 “지식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여러 남겨지는 정보들 속에서 의미있는 것을 도출해내는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시 되어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책을 좋아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출판기획자에 도전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현영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박영욱 출판기획자의 모습.



▲김병찬(영어영문 4) 학생의 모습.

교직원을 만나다

취업창업지원팀 우승식 과장을 만나다

머리로만 하는
고민은 해답을
주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 청년취업난으로 인해, 현재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취업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우리학교 학생들 또한 취업 혹은 창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성인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학교부서가 있다. 바로 ‘취업창업지원팀’이다. 이번 ‘교직원을 만나다’에서는 취업창업지원팀의 우승식 과장을 만나보았다. 그렇다면 취업창업지원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우승식 과장은 “취업창업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크게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교육프로그램, 취업상담 및 컨설팅, 채용정보지원 등으로 구분된다”고 운을 떼었다.

그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국내와 해외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학교 인

턴십을 이용할 경우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서는 장학금까지 지급한다”며 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의 이점을 설명했다.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고용노동부 감소 기업체형 프로그램, 자체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국일보, 그랜드힐튼 호텔 등에서 산학협력활동 중이다. 해외 프로그램은 ICCUSA 프로그램, KOIRA 프로그램, WES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ICCUSA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며 패션, IT,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십을 하게된다.

취업교육프로그램 또한 취업창업지원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교육프로그램에는 취업창업캠프와 취업창업페스티벌 등이 있다. 우승

식 과장은 “취업창업캠프에 참가하면 기업 인사담당자의 실전모의면접특강,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동향 및 채용트렌드에 관한 취업특강 등을 받을 수 있다. 취업창업페스티벌에서는 이미지 메이킹, 실전모의면접(UCC 촬영 등), 취업특강 등이 진행된다. 각각 매 학기 말이나 초에 진행되니 미리 정보를 알아두었다가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취업창업지원팀은 이 밖에도 고시반 운영, 기업특 특강, 365캠퍼스, 무료 모의토익·토익스피킹·OPIC 테스트(매월 시행)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승식 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해외 인턴십, 취업창업페스티벌, 기타 취업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이다. 그는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본교는 1년에 두 번 취업률 조사를 실시한다. 만약 취업률이

전년도 대비 하락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취업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승식 과장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앞서서 고민만 한다면 결국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한다. 실천에 옮겨야만 궁극적으로 본인의 뜻을 구체화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과 창업은 결국 학생들 자신이 하는 것이다. 취업창업지원팀은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서포터 역할이다. 학생들이 취업창업지원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잘 알아본 후, 자신에게 꼭 맞는 날개를 달아 멋지게 사회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본교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낙산 tōōn

대학생활의 달인

글, 그림 정다혜(시각영상 4)

◆ 연재기획 - 나를 자극하는 소리를 찾아서

② 속삭임과 사각거림에 취하다, ASMR

형언할 수 없는 쾌감, ASMR

우리의 귀로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소리. 흔히 클래식 음악과 같은 웅장한 음악을 들으면 온몸에 전율이 돋는다고 표현한다. 클래식과 같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님에도 우리를 전율하게 만드는, 소름 돋게 만드는 소리가 있다. 소름 끼치는 소리라고 말한다면 대개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를 생각할 것이다. 이런 기분 나쁜 소름 말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뒷 목이 간질간질한 기분 좋은 소름이 돋는 소리가 있다. 이 소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귓속말할 때의 속삭임이 그 예일 수 있고, 박스를 두드리는 소리, 그림을 그리는 소리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생활에서 듣는 다양한 소리가 우리에게 특유의 기분 좋은 소름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느껴지는 쾌감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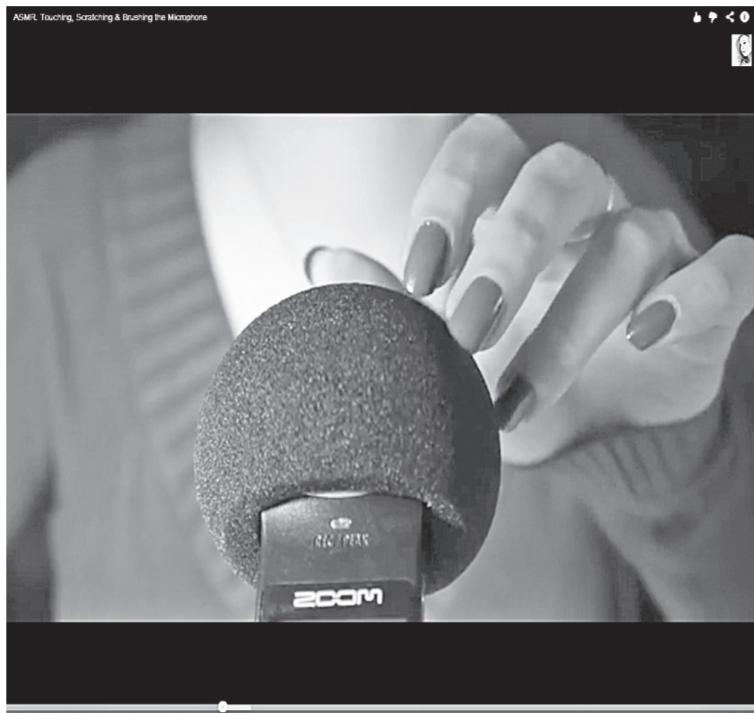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 엄마 무릎에 누워 귀를 팔 때, 피부 마사지를 받을 때, 눈이 슬슬 감긴다. 잠도 솔솔 온다. 왜일까? 감각의 자극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단순한 안정을 넘어 어떠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귓속말, 사물을 두드리거나 만지는 등의 소리를 들을 때 목뒤가 간질거리거나 척추가 저릿한 등의 느낌 말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기분 좋은 자극, 특유의 소름 듣는 느낌, 바로 'ASMR'이다.

ASMR의 시작

ASMR은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자율 쾌감 감각 반응'이라고 부른다. ASMR이라는 단어는 조어이다. 인터넷 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을 주는 자극'을 의미하는 새로운 말로, 2008년도 해외 이후 커뮤니티 등에서 유행했던 개념이다. 최근의 ASMR은 대개 청각적으로 느껴지는 자극에 의한 쾌감을 의미한다. 이에 '청각적 오르가즘'이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오르가즘은 성적 오르가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쾌감을 주는 자극

ASMR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사람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쾌감'이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청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촉각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귀 주변에서 나는 소리로 이발하는 소리, 귀피는 소리,



▲ 유튜브 'DonnaASMR'의 동영상으로, 마이크를 손으로 문지르는 ASMR영상이다.

마사지하는 소리, 속삭임 등이 그 예이다.

귀피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귓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고 엄마 무릎에 누워 있는 듯한 안락함을 느끼는 것이다. 소리만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거나 쾌감을 주기도 하고 속편을 취하도록 돕기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ASMR은 인터넷에서 유행한 개념이다. 즉 ASMR이라는 것 자체가 조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연구나 학명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ASMR과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지만 사람마다 그 감각의 도화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를 하

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ASMR을 두고 백색소음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백색소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백색소음은 특정한 파동을 가지는 소리의 반면, ASMR은 청각과 같은 특정한 자극을 통해 느껴지는 쾌감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백색소음과 ASMR은 청각적 요소에서 기인해, 결과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상이한 것이다.

ASMR을 즐기는 방법

ASMR은 유튜브 등에서 동영상 형

은 음성 파일을 통해 즐길 수 있다. ASMR 음원과 음성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물의 바스락 거림, 사각거림과 같은 소리이다. 펜, 연필로 종이에 필기를 하거나 빈 상자를 손으로 두드리거나 긁는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귓가가 찌릿하거나 두피가 근질근질하도록 만든다. 두 번째는 귓가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귓속말을 할 때 소름이 돋는 것처럼 그 감각을 유도하기 위해 속삭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물플레잉, 즉 역할극이다. 동영상 속 인물이 미용사, 이발사 등으로 등장해 듣는 이의 머리를 만지거나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 청각적 자극을 통해 촉각적 자극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사람마다 ASMR을 느끼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음원과 영상 역시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ASMR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쳐가듯 느꼈던 자극적 쾌감이다.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유독 특정한 감각이 느껴지는 소리를 찾아 원할 때마다 들을 수 있다. ASMR 음원 및 영상을 통해 청각적 쾌감을 언제나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청각적 쾌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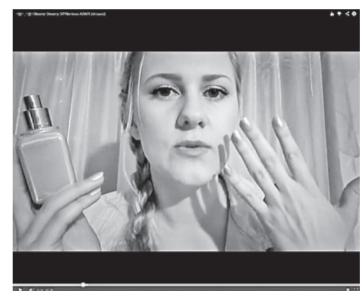
ASMR과 같은 특유의 소름돋는 느낌이 아닌, 특정한 주파수로 뇌를 자극해 쾌감, 즉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가?

다음 호에서는 뇌파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마약을 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거나 성적 오르가즘을 느끼게 한다는 '아이도저(O-doser)'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유튜브 ASMR 영상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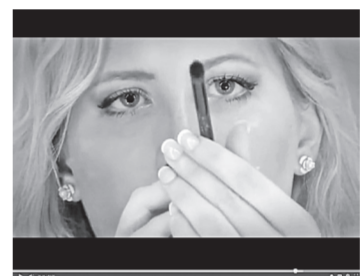
GentleWhispering



구독자 200,002명
조회수 53,832,573회

유튜브 ASMR 영상계의 여신. 러시아어와 영어로 역할극을 주로 올린다. 특유의 속삭임으로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ASMRrequests



구독자 112,101명
조회수 13,568,344회

깔끔하고 입체적인 소리를 녹음해 많은 팬을 보유했다. 특유의 부드러운 영상미가 돋보인다.

JustAWhisperingGuy



구독자 23,071명
조회수 2,482,248회

부드러운 저음의 남성 ASMR 제작자이다. 역할극에서부터 박스틀 여는 영상, 그림을 그리는 영상까지 다양한 ASMR을 제작한다.

심리심리 심리심리(心·心·衷·心·理)는 마음 속을 계대로 알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학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

'넌 참 의지력이 약한 게 문제야', '정신력으로 이겨 내봐' 등 여기저기서 의지력을 닦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력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발휘할 수 있는 걸까? 즉 의지력이 부족한 것은 순전히 내 탓일까?

의지력 또는 자기통제력은 다양한 목표 달성 등 바람직한 결과(좋은 성적, 멋진 몸매, 계획 완수 등)를 위해 불필요한 욕구(귀차니즘, 식욕 등)를 억누르고 자신의 생각 또는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즉 불필요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목표 완수에 정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따라서 의지력은 실제로 성적, 다이어트, 건강, 업무 성과 등 다방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실패에 있어 '의지력 부족이 문제'라는 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의지력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마음만 먹는다고 평평 쓸 수 있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버티거나 화를 꼭 참는 감정 조절, 지루함을 버티는 것 등 의지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러면 그 다

음에는 의지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야 의지력이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의지력은 연달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게임에서 필살기를 쓰고 나면 MP가 소모되어 이게 다시 채워질 때까지는 다시 필살기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의지력을 쓰는 데는 어떤 '연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 연료는 '당(글루코스)'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의지력을 발휘한 후 설탕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시 이전 수준처럼 의지력을 회복했지만 단맛만 나는 인공감미료를 먹은 사람들은 의지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즉 의지력은 공짜가 아니라 연료라는 '대가'가 필요한 능력이며 연료 수준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되는 까다로운 능력이라는 것, 원하는 대로 무작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의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당분 섭취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

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같이 신경과 에너지를 쪼먹는 악성고드 같은 것들이 없어야 한다. 각종 사회적 편견(젠더 차별, 인종차, 출신 지역이 ~니까 이상할 거야) 또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선들을 이겨내기 위해 늘 자신을 견뎌주고 주위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는지 정신력을 갉아먹는다는 연구들이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잘 하고 있다가도 편견에 노출되는 순간 의지력과 각종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가난' 또한 생존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통해 사람들의 정신력을 쪼먹어 IQ와 자기통제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있었다.

따라서 실패에 있어 의지력 부족을 탓하는 데 일리가 있지만 의지력의 부족을 무조건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의지력을 발휘하기 싫어서 발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해서, 원래야 할 수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래야 받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의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난 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척박한 상황

가로세로

①								③
							②③	
		②④		⑤				
							⑦	
④					⑤			
						⑥		⑧
⑤⑥			⑦					
			⑧				⑨	

■ 이름:

■학과/학년/학번:

■연락처: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

■한성대신문사에게:

이번 가로세로 당첨자는 없습니다.

경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가로

-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활약한 학자와 학파의 총칭.
- 관중과 포숙의 사경이란 뜻으로, 우경이 아주 돈독한 친구관계를 이르는 말.
- 전화기에서, 귀에 대고 듣는 부분. 보내는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꾸어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 00(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을 쓰는 종이.
- 이른 봄, 꽃이 필 무렵의 추위.
- <의학>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증상.
-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할어 버림.
- 복유립 신화에 나오는 불의 신이자 파괴와 재탄의 신.
- 어떤 대상에 쏠리는 대중의 높은 관심이나 좋아하는 기운.

세로

- 우리나라의 서남해 쪽에 있는 가장 큰 화산섬.
-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계를 맺음.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 순화.
- '0000하다(외관이나 분위기가 몹시 기이하고 괴상하다)'의 어근.
- 경치가 뛰어나 사적(史跡), 온천 따위가 있어 관광할 만한 곳.
- 한복 윗옷의 하나. 길, 소매, 섶, 깃, 동정, 고름, 골동, 회장 따위가 갖추어져 있다.
- 꽃의 특징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말.
-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준다.
- 00(눌러 찌냄)하여 즙액을 내는 기계.
-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만든이: 수습기자 최혜경

문의: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포럼소식

한국 대학생 경제 포럼 ERL 20기 모집

- ▶모집대상: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능동적인 의견을 갖고 싶은 대학생
- ▶모집일정: 3월 18일(화) ~ 4월 4일(금)
- ▶최종발표: 4월 7일(월)
- ▶활동기간: 4월 10일(목) 부터 / 매주 목요일 (총 8회), 19:00 ~ (약 2시간)
- ▶활동내용: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현상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ERL 과정
- ▶문의: http://cafe.naver.com/kusef/19872

2014년도 제5회 대학생 리더쉽 심포지엄

- ▶모집대상: 18세-30세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모집일정: 7월 20일(일)
- ▶활동기간: 8월 1일(금) ~ 8월 7일(목)
- ▶활동장소: 캄보디아 프놈펜의 다이아몬드션 컨벤션센터
- ▶활동내용: 리더쉽과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젝트 관리 교육, 불우이웃대상 인도주의적 봉사활동, 글로벌 인도주의 대표 인사들의 강연
- ▶문의: http://www.universityscholars.org.uk

박진영

연세대학교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심리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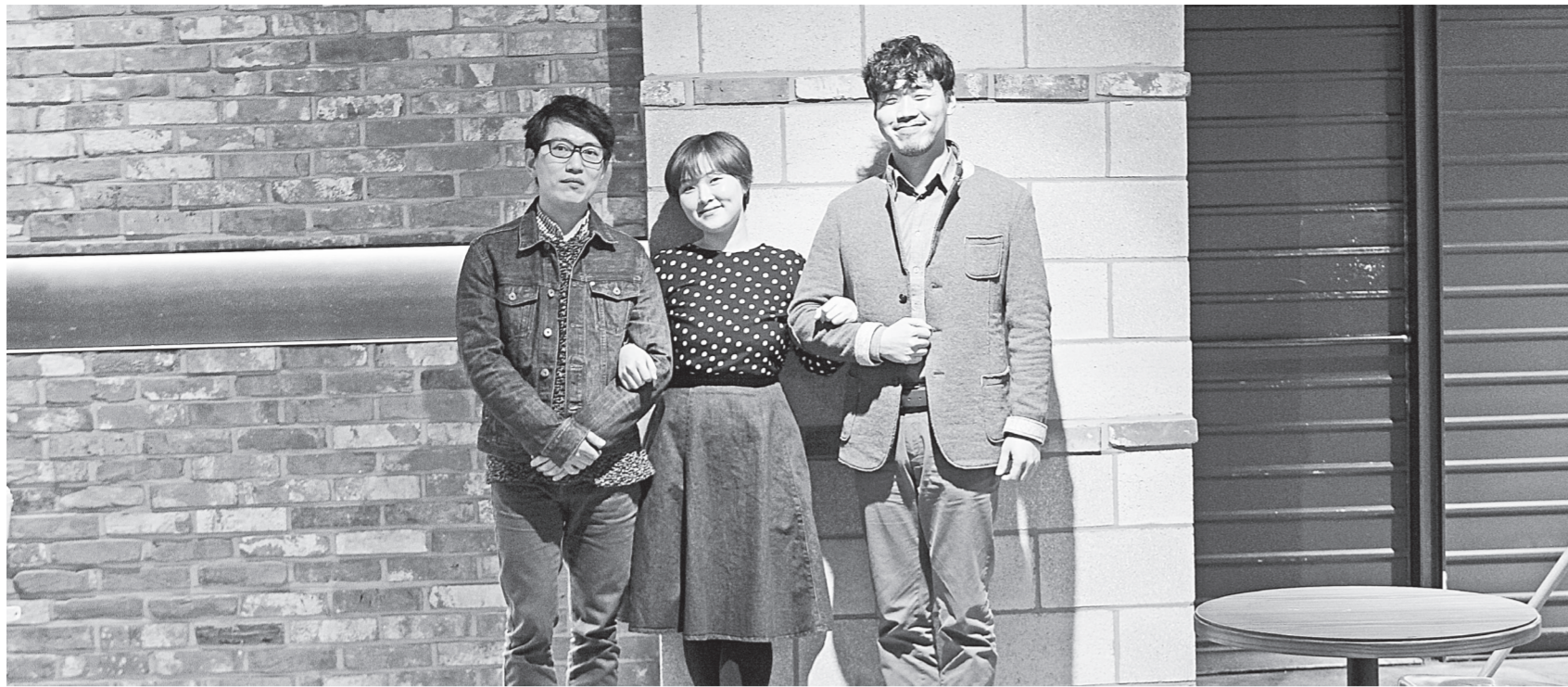
트위터 @imaum0217

페이스북 /jinyoung.park.311493

저서

『눈치보는 나, 착각하는 너』

『심리학 일주일』



버스킹을 좋아하는 밴드, 좋아밴

1. 좋아밴?

봄바람에 어울리는 밴드가 있어 만나 보았다. 따뜻한 봄의 시작과 함께 따뜻한 노랫말을 전하는 '좋아서 하는 밴드(좋아밴)'이다. 노래구절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일상을 훑쳐 부르는 듯 꾸밈없이 예쁘다.

좋아밴은 대학생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남녀 연령대 상관없이 넓은 층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아(대학생)씨는 "좋아밴의 가사들은 일상을 담고 있어 공감하는 재미에 좋아밴 노래를 자주 듣는다. 특히 '인생은 알 수가 없어'란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데 핫초

코가 소재인 만큼 반주와 보컬이 산뜻해서 듣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며 "듣다 보면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어 멋진 노래다"고 그들의 매력을 전했다. 게다가 좋아밴은 멤버 모두가 싱어송라이터로, 다함께 작곡부터 악기연주, 노래까지 다재다능한 능력자들이 모인 밴드이다. 그만큼 노래마다 작곡한 멤버나 주로 목소리를 내는 멤버가 누구냐에 따라 멤버들의 각자 매력이 돋보인다.

좋아밴이 봄바람과 어울리는 밴드가 된 사연에는 나

름의 이유가 있다. 봄바람 같이 설레는 멜로디에 더해 이들은 버스킹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는 밴드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좋아서 하는 밴드는 소속사나 관련 사설 업체의 도움 없이 버스킹 공연만으로 거리에서 2만장의 CD를 팔았다는 전설의 밴드이기도 하다. 하루가 다르게 따뜻해지는 날씨에 하루 빨리 좋은 노래, 공연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좋아서 하는 밴드를 만났다.

2. 좋아서 하는 밴드입니다

기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조준호> 피커션과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있는 조준호입니다.

안복진> 밴드에서 아코디언을 맡고 있는 안복진입니다.
현> 기타를 치고 있는 손현입니다. 좋아밴은 딱 보컬 멤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멤버 모두가 싱어송라이터, 각자가 곡을 쓰고, 연주도 하고 직접 부르거든요.

기자> 얼마 전까지 날씨가 쌀쌀해서 버스킹 공연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 작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공연하고 겨울을 보냈어요.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여유를 갖고 쉬어가는 기간을 가졌어요. 정규앨범을 준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그 보상으로요.

현> 특별히 공연일정을 잡지 않아서 몸은 편했지만, 보릿고개였어요. 저희와 같은 싱어송라이터들은 겨울에는 주로 곡을 새로 쓰거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일을 굳이 만들어서 시도해요.

기자> 멤버 전부 작곡, 작사하는 만큼 다른 매력이 돋보이는데요.

준호> 복진은 감성적인 부분이 정말 강해요. 가사로도 그 부분이 표현되고 멜로디에도 나타나요. 게다가 이런 감성을 표현하기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멤버들이 대체 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이 더 돋보이도록 저희가 잘 살려주고 싶어요.

복진> 두 오빠의 성격이 매우 달라요. 그런데 둘이 또 잘 어울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선 손현 오빠는 어느 순간 불같이 화를 내지만 밍지 않아요. 그런 만큼 뒤 끝이 없으니까요. 음악적인 면에서도 직구, 돌리치 않고 표현하는 점이 매력적이예요. 저는 둘러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준호 오빠는 부드럽고 다정해요. 배우고 싶은 점이라면 성실하고 시간적인 면에서 확실해요. 본받고 싶은 오빠만의 장점이예요.

기자> 멤버 모두가 싱어송라이터라 밴드의 곡 하나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복진> 우선 멤버 각자가 곡을 써오는 편이예요. 새로운 미니앨범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방법을 바꾸려고 얘기 중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완성된 곡을 한 멤버가 가져왔어요. 그 후에 곡 작업에 있어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공동작업을 하는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요.

준호> 노래를 잘흥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아요. 처음 곡을 생각했을 때 멤버의 기획 위주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른 느낌으로 부르기도 해요. 공연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하구요.

기자> 처음 어떻게 좋아밴 멤버로 모이게 됐는지 궁금해요.

준호> 일반적으로 밴드멤버가 모일 때 노래 장르나 '브리티쉬 팝밴드'처럼 밴드의 컨셉을 중심으로 모여요. 그런데 저희 밴드는 만들때 당시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였죠.



복진> 물론 처음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이전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처음 보고 관심을 갖고 연락처를 주고 받아 알게 되었어요. 준호오빠는 제 아코디언을 처음 봤었고, 저는 준호오빠의 피커션을 처음 봤었어요. 역시나 이런 저희와 저희 각각의 악기의 만남이 다른 밴드와 다르게 점차 좋아밴의 색깔로 돋보여지는 것 같아요.

기자> 애착이 가는 곡 좀 알려주세요.

현> 네가 오던 밤이란 곡이 있는데, 처음 이 곡을 쓸 때 멜로디랑 가사를 한 번에 쓰도록 썼어요. 그리고 멤버들과 얘기해보니 후렴구문을 만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이것저것 노래에 변화를 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처음의 노래 그대로 나왔어요.

복진> 이 노래리뷰 중에 "얽집오빠가 흥얼거리는 곡 같다. 후렴을 부를 용기가 없었는지."라고 읽고 엄청 재밌어 했던 리뷰가 있어요. 이 노래만의 매력을 잘 설명해 준 리뷰였어요.

저는 저의 순발력에 놀랐던 곡이 있는데, '너에게 흔들리고 있어'란 노래예요. 최근에 나왔던 곡이기도 하고, 빠른 시간에 작업한 곡 치곤 좋았어요. 소니 노트북하고 콜라보레이션 작업한 곡이었는데 이때 느낀 게, '아, 입금만 되면 바로 할 수 있구나.'

준호> 제가 썼던 가사나 멜로디에 대해서 다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편곡하고 음원으로 나온 노래는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도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라이브공연을 통한 노래는 자신 있어요.

기자> 앞으로 따뜻해지는 날씨에 좋아밴의 공연을 보러 선제쯤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요?



학교: 핵심교양은 치명적인 매력의 문화정보만을 선별하여 전하는 기사 코너입니다. 교양 교양 중 가장 치명적인 매력인 핵심교양, B와 같이 한성인이 교양을 쌓는데, 상식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사이

1. 2014 상반기 창덕궁 달빛기행 (Moonlight Tour at Changdeokgung Palace)



살아 숨 쉬는 궁궐 만들기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 장소: 창덕궁
- 참여인원: 회당 100명(선착순 접수)
- ※단 4월에 운영하는 2부(20시 입장)의 경우 80명
- 참가비: 30,000원
- ※1인 최대 2매 예매가능
- ※신분증 지참요,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 ※인터넷 예매, 전화 예매 가능
-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진행

-프로그램(약 120분 소요)

- 창덕궁 야간답사: 창덕궁의 역사, 문화, 조경 등에 대한 안내해설 제공
- 관람동선: 돈화문(입구)→집선문→인정전→낙선재(달빛감상)→부용지(달빛감상)→불로문→연경당(전통공연 및 다과)→후원술길→돈화문(해산)
- 전통예술공연 관람(다과 시식: 연경당약 30분)
- 기간: 4월-6월
-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1544-1555)
- 문의: 02-2270-1233, 1238
- 주최: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 DIALOGUE IN THE DARK (어둠 속의 대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시각 이외의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한 익숙하지만 낯선 진정한 소통의 발견이라는 발상에서 본 전시는 시작이 됩니다."

-개요: 자연, 도심, 카페 등의 테마로 구성, 총 90분 소요,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매 15분 간격으로 8명이 입장하는 '소수인원투어' 방식으로 진행.

※ 완전한 어둠 속의 체험을 위해 관람시간 15분 전까지 전시장 도착 권장.

-장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8-1 버티고타워 9층

-티켓가격: 성인 30,000원, 청소년 20,000원

-관람시간 - 화, 수, 목, 금: 오후 12시-오후 8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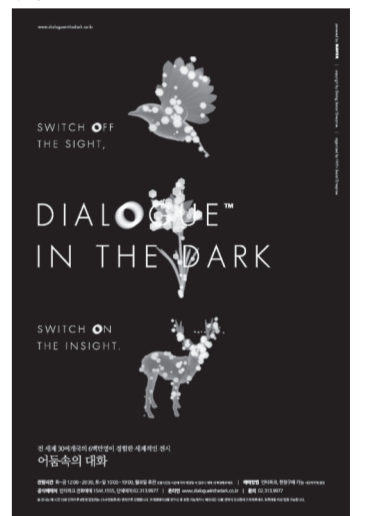
토, 일,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7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예매방법: (사전예매 권장) 인터넷 예약제, 현장 판매, 전화예매는 1544-1555

※ 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문의: (안내데스크)02-313-9977



'수상한 그녀'와 노인



문화읽어주는 기자
오그림

나는 슈퍼 히어로가 세상을 구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 소소한 한국영화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안 보는 편이다. 하지만 어느 오 후 예상치 못하게 외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외할머니와 영화 한 편 보러 가자는 전화였다. 무슨 하릴 말씀이라도 있으신 걸까란 생각에 만사 제쳐두고 외할머니와 영화를 보러 나섰다. '수상한 그녀'란 영화를 보았다.

영화 '수상한 그녀'는 꽃같이 젊었을 적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힘들게 아들을 키운 오말순 할머니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였다. 오말순 할머니의 자랑거리는 오로지 대학교수인 아들이다. 그래서인지 아들 옆의 며느리에게 사사건건 꼬집을 부리기 일쑤다. 지병을 앓고 있던 며느리는 극심한 시월드로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라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는 얘기를 하고, 할머니는 이를 엿듣게 된다. 가족들에게 상심한 할머니는 우연히 한 사진관에서 영정사진 걸 사진을 찍는데, 할머니에게 마법이 일어난다. 사진관을 나서는 할머니는 20대 처녀의 모습이 된 것이다. 이제 스무 살이 된 오말순 할머니

는 오두리란 처녀로 새로운 젊은 시절을 보낸다.

이 영화 초반에 한 대학교수는 학생들에게 '노인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묻는다. 대학생들은 "냄새나요", "억지스러워요", "쭈글쭈글해요"라고 답한다. 적지 않은 충격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솔직한 생각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영화는 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로 관객으로 하여금 사회 속 노인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젊은이 오두리로서의 새로운 삶은 오말순 할머니, 노인들에게도 언젠가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한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영화 속뿐 아니라 현실의 젊은이들은 노인에 대해 자연스레 말쑤하고 있다. 분명 세대차이로 인한 다른 문화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영화의 노인 오말순은 젊은이 오두리로 신인 밴드의 보컬이 되어 젊은이들에게 그녀의 노래로 환호를 받는다. 그녀에게 마법이 일어나기 전 그녀를 향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은 어찌 생각하면 우리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을 더해 꿈보다는 자식을 먼저 생각해야 했던 현재 노인(오말순 할머니)의 모습도 환기시킨다. 시간흐름에 따라 몸도 마음도 나이 가든 그들에게 믿고 의지할 곳은 가족의 품뿐이라는 것이다. 영화 속 실버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오말순 할머니에게는 주위에 같은 나이 또래도 많았고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에게 간절했던 것은 가족이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나이가 들고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성숙을 넘어 늙어가 노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아니 사회가 다반사 노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몇 십년 후의 우리의 노년 또한 안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우리 노년을 생각할 줄 젊은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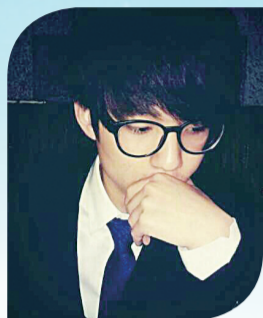
이 날 외할머니는 나에게 아무런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

멀리서 온 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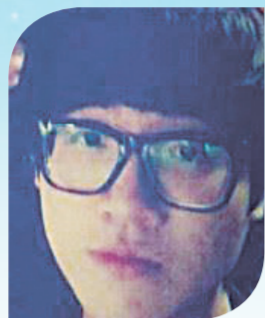
통학하는 그대

꽃이 피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봄과 함께 설레는 새 학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앉아, 옆자리에 앉은 학우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넌 어디서 사니?" 아직 서로가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취, 통학, 기숙을 하는 그대들을 한성대 신문사 수습기자들이 탐구합니다!

노유진 수습기자 ly321082@hansung.ac.kr
노은희 수습기자 ehbaby@hansung.ac.kr
문서희 수습기자 h432018@hansung.ac.kr
박도희 수습기자 14dohee@hansung.ac.kr
임태미 수습기자 taem14@hansung.ac.kr
전희민 수습기자 aegis16@hansung.ac.kr
한지선 수습기자 mongrock@hansung.ac.kr



임원진
한국어문 1
인천광역시



임우봉
경영 2
경기 부천시



김원석
경영 1
경기 용인시



홍재훈
경영 1
경기 구리



최현진
경영 1
경기 연천



홍예진
행정 3
경기 안산

Q. 통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원진: 주안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재훈: 지하철을 타고 한 시간정도 걸려요.
우봉: 지하철을 2번 갈아 타고 1시간 10분정도 걸려요.
현진: 연천에서 통학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원석: 저는 용인에서 통학하는데 최소 4번 환승해서 2시간 걸려요
예진: 전 안산에서 통학하는데 2시간 걸려요.

Q. 통학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예진: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요!
재훈: 제가 늘 생활하는 집에서 잠을 자고 학교에 오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줘요!
원진: 자취하는 것보다 돈도 절약되죠!

Q. 통학하면서 힘든 점은 뭔가요?

원진: 잠이 많은 편이라 오고 갈 때 자주 졸아서 내려야할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재훈: 학교 앞에서 늦게까지 술을 못 마셔요. 얼마전 개강파티 때 택시타고 갔는데 15,000원 나왔어요.
원석: 야간이라 전공수업 끝나고 집 가면 새벽 1시라서 너무 힘들어요.

Q. 만약 자취나 기숙을 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요?

원진: 막자 걱정 없이 노는 거죠!
우봉: 학교 근처에서 알바하고 싶어요.
재훈: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제 자취방에서 놀고 싶어요.

Q. 통학시간 동안 시간 때우는 팁은?

원진: 부족한 잠 보충하는 거요.
우봉: 음악을 듣거나 예능프로그램 한 편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원석: 책을 읽거나 단어를 외우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Q. 통학하면서 있었던 일화 있다면요?

원진: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서로 자리에 앉으시겠다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SNS에 서만 보던 상황을 실제로 보니 신기했어요.
원석: 양재역에서 새터 때 같은 방을 쓰던 동기의 학생증을 우연히 줄게 돼서 '세상 참 좁구나' 했어요.

기숙하는 그대



M: 남자 기숙사

W: 여자 기숙사

후배이야기

Q. 기숙사! 이런 점은 좋다!

M&W. 통학 거리가 가깝고 자취방의 월세 값보다 저렴하고 시설도 좋아요. CCTV가 있어서 보안도 안전하고요.

Q. 기숙사! 이런 점은 불편하다!

M. 일단 책상이 붙어 있어서 공부하기가 좀 불편해요. 베란다와 방이 4명이 쓰기엔 비좁아요.
W. 공동 샤워실인 것이 가장 불편해요.
M&W. 빨래를 널 공간이 따로 없어서 불편할 때가 많아요.

Q. 기숙사! 이런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M. 따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W. 물탱크 청소나 바닥 수리를 할 때에는 미리 공지를 했으면 해요.
M&W. 빨래를 널 옥상을 개방하거나 별도의 공간이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통금 시간인 11시 반까지 돌아오기가 너무 촉박해요. 12시까지로 늘었으면 좋겠어요. 한달에 쓸 수 있는 외박계 횟수도 늘어났으면 합니다.

선배이야기

Q. 기숙사! 끼니 해결법?

A. 보통은 기숙사에 있는 전자레인지로 이용해요. 계란찜이나 스프도 해먹고 근처 마트에서 사온 냉동식품으로 조리를 해먹어요.

Q. 기숙사! 이런 점은 꼭 조심해라!

A. 한 방에 4명이 생활을 해요. 분명 그것은 자기의 방이지만 자기만의 방이 아니죠. 룸메이트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깝게 지내는게 좋아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서로 맞춰가야 해요. 공동 공간은 청결하게 사용하고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A.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발점 관리예요. 일정량의 발점이 되면 강제 퇴사를 당해요. 외출할 때 통금시간을 꼭 지키고, 늦을 것 같은 날에는 외박을 미리 신청해야 돼요.

Q. 기숙사! 초보 신입들에게 한마디!

A. 기숙사가 공동생활이다 보니 불편한 점도 많지만 다른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나 힘든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은 방 선배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김다영 의생활 1



유진수 경영 1



김채연 의매 2



임지예 애니 3

자취하는 그대



권현진
시각영상 1

자취를 시작하지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살아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취를 결정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자유로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숙사처럼 통금이 없으니 제 마음껏 놀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자취를 시작해서 재밌기도 하지만, 한정된 돈 안에서 식비, 생활비 등을 다 해결해야 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학기 초라 나가는 돈이 많고 친구들과 노는 데도 돈을 많이 씁니다. 생활비를 잘 관리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Q. 자취생활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자취생의 장점은 집이 가깝다는 거랑 혼자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물론 혼자 사는 게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기숙사는 다르게 통금이 없어서 자유롭고,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대신 집안일을 혼자 다 부담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자기관리가 안될 수 있어.

Q. 생활비 관리가 힘들진 않은지, 생활비에 대한 팁을 알려주세요.

A: 겨울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것 빼고는 관리비가 많이 들진 않아요. 겨울에는 두꺼운 옷 입고 자거나, 전기장판으로 난방비를 절약하는 게 좋아. 관리비보다는 밥을 집에서 해먹지 않아서 드는 식비나 술값을 줄이는 게 나요. 매번 밥을 사먹는 것보다 집에서 밥을 챙겨 먹는 게 좋지. 처음엔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귀찮고 여색할 수 있지만, 사먹는 것보다 돈도 적게 들고 건강에도 더 좋으니까.

Q. 자기관리를 잘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요?

A: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면 오후 수업이후로 시간표를 짜는 게 좋아.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지만, 자취방이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해. 또, 너만의 원칙을 정하고 최대한 그걸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해봐!



허다명
행정 4



신창훈
경영 1

저는 자유롭지 않은 공간을 싫어하고 고향이 영주이다 보니 자취밖에 선택권이 없었어요. 처음에 자취방에 와서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고 부모님이 없고 익숙하지 못한 곳이다 보니 외로울 때도 많고 고향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부모님 품에 벗어나면서 자유가 생기고 통금이 없어 좋았어요.

저는 자취한지 두달 되어갑니다. 자취를 오래하신 선배님께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Q. 자취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처음에 기숙사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하숙을 하다가 잠자리와 위생이 좋지 않아서 5월부터 자취를 하게 되었어.

Q. 자취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A: 힘들었던 점으로는 밥을 잘 못먹는 점이 힘들었어요. 또 TV와 컴퓨터가 없어서 많이 심심했지. 방학 때 술 먹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부모님, 친구들이 그리워. 좋은 점으로는 제일 먼저 통금이 없고 자유롭고 내 집이 있다는 점이야. 또 자기만의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

Q. 자취하면서 생긴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요리 실력하고 잠이 늘더라고(웃음) 비닐봉지에 운동화를 넣고 세제 넣고 물 넣고 30분 동안 걸어 놓고 씻으면 운동화

세탁이 되는 팁이 있어.

"자취는 인생에 살면서 한번쯤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혼자 사는 삶을 즐기고 사회생활을 배우기 위해 자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중덕
경영 2